

15.12.07(월)~15.12.11(금)

통신/미디어 Analyst 김희재

khjaeje@daishin.com

1. 주가 현황

	12/30	12/04	12/11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SKT (017670)	268,000	232,500	234,000	▼ 34,000	▼ 12.7%	▲ 1,500	▲ 0.6%
KT (030200)	31,250	29,550	28,950	▼ 2,300	▼ 7.4%	▼ 600	▼ 2.0%
LGU+ (032640)	11,500	10,050	10,300	▼ 1,200	▼ 10.4%	▲ 250	▲ 2.5%
KOSPI	1,915.6	1,974.4	1,948.62	▲ 33	▲ 1.7%	▼ 26	▼ 1.3%
주가 Comment	■ 전주 5% 넘게 급락한 LGU+만 소폭 반등하고 전반적으로 통신주의 약세 지속. 주파수 경매, SKT-CJHV 인수 관련 통신사간 공방이 지속적으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지수 하락, 배당 시즌 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주의 약세 지속 ■ 주파수는 예상 경매 대역이 메인 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열 가능성 낮고, 유료방송 시장은 KT-SKT의 2강 체제가 구축되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UHD로의 진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 ■ 현시점에는 통신 관련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사업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						

2. 주간 코멘트

선택 약정 할인, 지원금 경쟁, T전화, UO, 헬스케어, LTE 신기술, 협대역 LTE, 홈 IoT, 갤럭시 J7, 방통위 과징금

선택 약정 할인	12/11(금) 선택 약정 할인 가입자 400만명 돌파	산업
	1. 요금할인을 12%에서 20%로 상향조정 후 일 평균 가입자 1만6천여명에 달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선택약정할인 서비스, 최근 국내 이동사 전체 가입자의 15%에 해당하는 400만여명 돌파 2. 새 휴대폰을 구입하며 단말기 할인을 받는 이용자와 약정이 끝난 후 기기변경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 비중 각각 77.4%, 22.6%. 또한 단말기 할인을 받지 않는 신규 가입자 21.1%에서 34.4%로 증가	무선
	■ 선택 약정 할인은 휴대폰의 지원금 대신 2년간 월요금의 20%의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제도, 원래 법의 취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지원금보다 조금 많은 20%의 요금할인 적용 ■ 선택 약정 할인 가입자가 많아지는 것은 ARPU에는 부정적이거나, upfront 마케팅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은 개선되는 효과 발생 ■ 20% 체제 하에서는 2년에 걸친 총 요금할인이 휴대폰 지원금보다 조금 많지만, 시간 가치와 가입자 유지 효과를 감안하면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음	중립적
지원금 경쟁	12/10(목) 이동사 지원금 경쟁 시작	산업
	1. 연말은 휴대폰 시장 최대의 전통적 성수기로 내년 초 신규 프리미엄폰 출시와 맞물리며 중저가폰 판매 증대 및 기존 프리미엄폰 재고정리를 위한 이동3사 지원금 경쟁 시작 2. SKT, 단독 출시한 화웨이 넥서스6P 지원금 30만원 책정 등 실속형 중저가폰 제품을 중심으로 총 7종의 제품 지원금 상향 조정 3. KT, 단독 출시 중저가폰 갤럭시J7과 LG전자의 G4 각각 33만원, 30만4천원 지원하며 총 8종 제품 지원금 상향 4. LGU+, 지난달 갤럭시A5 지원금 31만 2천원 책정 등 총 7종 지원금 조정	무선
	■ 단말기 유통법이 도입된 이후 과열경쟁은 줄어들고 있고, 연초 과열을 유발한 SKT에 대해 10월에 단독 영업정지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휴대폰 판매 시장이 쉽게 과열되지는 않겠지만, 연말 특수를 감안하면 일부 과열 발생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	중립적
T전화	12/10(목) SKT 통화서비스 'T전화' 개방	기업
	1. SKT 이용자에게만 제공하던 통화서비스 'T전화', 앱 마켓에 출시하며 안드로이드 4.1버전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통신사와 무관하게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개방, 기존 SKT 가입자 800만명 포함 국내 안드로이드 사용자 약 3천만명의 잠재적 이용자 확보 ■ T전화는 통신사가 통신의 가장 기본 기능인 통화에 대해 제조사 대비 우위를 점하게 된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 그 동안은 최신 휴대폰과 SKT 고객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반쪽 어플로 취급 당해왔으나, 이번에 안드로이드를 통해 모든 통신사에 개방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 ■ 단순히 T전화만 제공하는 기능들의 편리성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단말기 유통법을 포함해서 이번 T전화의 확대는, 휴대폰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에서 통신사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긍정적
UO	12/7(월) SKT, 中 화수미디어와 스마트 디바이스 협력	기업
	1. SKT, 디지털 콘텐츠 공급사업자이자 약 1억5천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미디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인 중국의 화수미디어와 '스마트 로봇' 및 'UO스마트빔' 공동 마케팅과 스마트 디바이스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 체결 2. 지난 5월 론칭한 라이프웨어 신규 브랜드 '유나이티드 오브젝트(UO)'의 인지도 제고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가속화	SKT
	■ 통신 결합형 생활용품 브랜드 UO는 SKT 생활가치형 플랫폼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표 상품 'UO 스마트빔 레이저' 출시 한달 만에 판매와 선주문 물량 3만개를 넘어섰고, 최근 UO 브랜드 중국 상표까지 출원한 상황으로, 통신을 넘어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SKT의 사업분야 다양화에 주목할 필요 있음	긍정적

헬스커넥트	12/7(월) SKT 지분투자 헬스커넥트, 中에 ICT 기반 당뇨관리 솔루션 제공	기업
	1. SKT와 서울대병원이 합작 설립한 병원관리 솔루션 기업 헬스커넥트, 중국에서 ICT 기반의 당뇨관리 솔루션 사업 시작 2. 중국 국공립 병원과 연계, 웹을 통한 의사의 처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콜센터로 연결해 대처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 제공 3.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할 예정으로, 향후 중국 외 타 해외지역으로의 솔루션 수출 및 사업 확장 계획	SKT
	■ 세계적 수준의 국내 의료기술이 더해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모델로, 헬스케어는 SKT가 비통신 영역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 단기간 내 의미 있는 수익 창출은 쉽지 않겠지만, 꾸준한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드디어 사업을 개시, 확장하는 모습은 긍정적	긍정적
LTE 신기술	12/7(월) 국내 통신사, 협대역(Narrow Band, NB) LTE 연구개발	기업
	1. SKT, 삼성전자와 함께 LTE 통신 기술 '분산 LTE 교환기' 개발 및 시연 성공 2. 분산 LTE 교환기는 장비들을 여러 지역에 나눠 배치, 대용량 데이터를 높은 품질로 효율적인 전송 및 실시간 데이터 서비스 구현 가능 3. LTE N/W 트래픽 집중 분산으로 망 부하 해소, 장애 신속 처리 등 N/W 운용 효율성 향상	SKT
	■ 데이터 이용 속도를 높여 고객 만족도 제고 및 급증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5G 통신기술 도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있음	긍정적
협대역 LTE	12/7(월) 국내 통신사, 협대역(Narrow Band, NB) LTE 연구개발	기업
	1. 지난 7일 LGU+, 협대역 LTE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주차공간 현황 파악 및 내차 찾기 등이 가능한 스마트 주차관리 서비스 개발 2. 협대역 LTE를 이용한 서비스 혁신 및 산업 발전, 공동 테스트 제품 검증 등을 위한 LGU+ NB-LTE 오픈 연구소 설립 추진 중 3. 지난 9일 SKT-노키아, LTE N/W 기반의 IoT 기술 협대역(NB)-IoT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MOU 체결	LGU+ SKT
	■ 협대역 LTE는 저용량 데이터를 넓은 공간에서 적은 전력만으로 송수신해 대부분의 IoT 기기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향후 위치추적용 또는 데이터 수집용 기기 등 보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활용도가 매우 높아 꾸준한 연구 개발은 긍정적이라는 판단	긍정적
홈 IoT	12/8(화) LGU+, 내년 상반기 홈IoT 서비스 16종 출시	기업
	1. 내년 상반기 16종 이상의 가정용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선보이며 현재 제공하는 14종의 서비스 두 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 2. 삼성전자 및 중소 생활가전사 등과의 제휴 확대를 통해 다양한 가전제품을 IoT 플랫폼과 연동해 선보일 예정 3. 내년 하반기에는 외부 온도, 미세먼지 등을 측정해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의 동작 제어 등이 가능한 지능형 IoT 서비스 출시 예정	LGU+
	■ 지난 7월 상용화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가입자 8만명 돌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LGU+ 홈 IoT 사업 확장은 결합상품을 통한 가입자 유도 및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증가 측면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이라는 판단	긍정적
갤럭시 J7	12/9(수) KT 단독 출시 '갤럭시J7', 판매량 1만대 돌파	기업
	1. 중저가폰 라인업 강화를 위해 단독 출시된 실속형스마트폰 '갤럭시J7' 지난 7일부터 매일 2천여대씩 판매, 출시 닷새 만에 판매량 1만대 돌파 2. 30만원대 저렴한 출고가에 5.5인치 화면과 대용량 배터리 등의 장점으로, 40~50대 중장년층과 10대 청소년 등에게 인기를 끌고 있음	KT
	■ 합리적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한 중저가폰의 확산은 단말기 가격에 비례하는 통신사 마케팅 비용 감소 측면에서 긍정적	긍정적
방통위 과징금	12/10(목) SKT, KT, LGU+ 등 결합상품 허위광고로 17억 과징금	산업
	1. 국내 통신사(SK, KT, LGU+, SKB) 및 5대 MSO(CJ·H·V, 티브로드, C&M, 현대HCN 금호방송, CMB대전방송) 9개사 결합상품 관련 허위, 과장, 기만 광고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SKT, KT, LGU+ 각각 5억 6천만원 등 총 20억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받음	무선
	■ 사업자간의 공정 경쟁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방통위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	중립적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희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